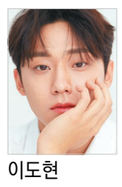
연예뉴스 HOT 5

‘더 글로리’ 임지연-이도현, 열애설 인정


임지연


이도현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 출연한 임지연(33)과 이도현(28)이 열애 중이다. 2일 임지연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와 이도현의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자 각각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드라마에서 함께 출연한 장면이 많지 않았던 두 사람은 촬영이 끝날 무렵 가까워졌고, 또 드라마 워크숍을 계기로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중 임지연과 이도현은 각각 학교폭력 피해자인 송혜교가 복수하고자 하는 가해자와 복수를 돕는 성형외과 의사를 연기했다.

제이홉, 4월 중 입대…“현장방문 삼가 부탁”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정호석·29)이 4월 중 입대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위버스를 통해 “제이홉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대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며 “신병교육대 입소식은 다수의 장병 및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다.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1994년생인 제이홉은 방탄소년단 멤버 중 두 번째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1992년생인 진이 지난해 12월 입대했다.



에스파, 8월 일본 도쿄돔서 공연

걸그룹 에스파(사진)가 8월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한다. 2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8월 5일과 6일 이틀간 도쿄돔에서 ‘에스파 라이브 투어 2023 싱크 하이퍼 라인 인 재팬 스페셜 에디션’을 개최한다. 2020년 11월 데뷔한 에스파는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단기간 도쿄돔 무대에 오른다. 약 5만여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도쿄돔은 가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꼽힌다. 앞서 에스파는 3월 15일·16일과 18일·19일 오사카성 홀, 4월 1일과 2일 도쿄 국립 요요기 경기장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15일과 1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전도연 주연 ‘길복순’, 글로벌 OTT 3위 올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사진)이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차트 3위에 올랐다. 2일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길복순’은 1일 기준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다. 80여 개국에서 많이 본 영화 순위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한국을 비롯해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6개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영화는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전도연)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킹메이커’의 변성현 감독이 연출하고 설경구, 이솜, 구교환 등이 출연한다.

카타르 최초 대규모 ‘K팝 페스티벌’ 5월 개최

카타르에서 최초로 대규모 케이(K)팝 페스티벌이 열린다. 5월 19일과 20일 카타르 루세일 다목적 경기장에서 케이팝 페스티벌인 ‘케이원 페스타 인 카타르 2023’이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선미, 뱀뱀, 그룹 에이티즈, 아이콘, 오마이걸, SF9, 에버글로우, 피원하모니, 싸이커스, 드리핀 등 총 10팀이 출연한다. 주최사측은 “케이팝과 케이컬처를 통해 카타르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진 공연이니만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SBS ‘모범택시2’·12일 첫방 tvN ‘스틸러’와 제작 앞둔 ‘플레이어 시즌2’까지

안방극장, ‘다크히어로’가 접수한다

안방극장을 ‘다크히어로’가 점령했다. 다크히어로란 악의 무리를 응징하기 위해 정의로운 방법이 아닌 편법과 폭력을 활용하는 영웅을 뜻한다. 현재 방송 중인 SBS ‘모범택시2’의 이제훈을 비롯해 12일 첫 방송하는 tvN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스틸러) 주원, 조만간 제작에 착수하는 ‘플레이어’ 시즌2의 송승헌 등이 다크히어로 주인공으로 변신해 시청률 잡기에 나선다.


배우 이제훈과 주원, 송승헌(왼쪽부터)이 각각 드라마 ‘모범택시2’와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플레이어’ 시즌2를 통해 다크히어로로 변신한다.
사진제공 | SBS·tvN

이제훈, 억울한 피해자 사적복수
주원, 문화재 밀거래 세력과 맞짱
송승헌, 대기업 오너 불법 응징

●도둑부터 사기꾼까지 ‘화려’

다크히어로를 끌어들여 시즌제로 확장한 ‘모범택시2’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적복수를 대행해주는 ‘무지개운수’의 활약상을 담는다. 행동대장 역인 이제훈이 화려한 무술 실력과 변장술, 입담 등을 다방면으로 활용해 악당들을 소탕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사이비 종교, ‘버닝썬 게이트’, 아동학대 문제 등을 시의적절하게 다뤄 호평을 이끈 덕분에 시청률이 1일 18.3%까지 치솟았다.

‘스틸러’는 밀수출이나 밀반입 등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문화재 환수팀이 주인공이다. 낮에는 문화재청 특별조사과 사무관으로 일하는 주원이 밤이 되면 문화재 도둑 ‘스컹크’로 활약하면서 문화재를 밀거래하는 검은 세력들과 맞선다. 이주우, 조한철, 김재원 등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 전담팀이 주원을 도와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팀플레이’도 펼친다.

송승헌이 사기꾼으로 등장해 2018년 11월 종영한 ‘플레이어’는 무려 5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온다. 시즌1에 이어 그가 해커, 파이터, 운전수 등과 팀을 이뤄 불법을 일삼는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돈을 훔치는 내용이다. 오연수, 장규리 등이 새로운 팀원이 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해외 시청자에 익숙한 케이퍼 무비(강도단의 활극) 장르를 표방해 글로벌 OTT로도 공개할 방침이다.

●“신랄하고 설득력 있는 소재”

다크히어로 소재는 액션,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신선하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일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드라마의 표현 수위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지면서 액션, 범죄 장르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최근 한국드라마의 새 트렌드로 떠오른 ‘사적복수’에 대한 관심이 다크히어로 소재로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미국 연예매체 콜라이더는 ‘모범택시2’에 대해 “보복과 복수의 개념은 한국드라마의 핵심”이라면서 “주인공의 깊은 도덕적 갈등이 시청자에게 설득력과 공감,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안긴다”고 평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총든 ‘K-고딩’들의 처절한 전투…‘방과 후 전쟁활동’ 화제

외계생명체와 맞서는 학생들 이야기
OTT 통합검색 랭킹 2위…CG 호평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방과 후 전쟁활동’이 지난 달 31일 공개 이후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티빙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방과 후 전쟁활동’이 외계생명체와 전투에 나선 고교생들의 이야기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 좀비와 맞서 싸우는 고교생들을 주인공으로 해 글로벌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지우학)과 비교하는 시선까지 나오면서 ‘제2의 지우학’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첫선을 보인 드라마는 공개 이틀 만인 2일 OTT 통합검색 플랫폼 키노라이츠의 ‘오늘의 통합랭킹’에서 2위를 차지했다. 티빙 내에서도 공개 직후 ‘톱20 프로그램’ 정상에 이름을 올린 후 2일 2위를 지키고 있다.

드라마는 지구를 뒤덮은 외계생명체가 시민들을 습격하자 군사훈련에 동원된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훈련을 캠핑 수준으로 여겼던 학생들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전투 현장에 놓이면서 점차 변화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학생들이 대입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전투에 참여한다는 설정이나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팀워크를 다져가는 모습이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SF나 판타지 소재의 드라마에서 ‘난관’으로 꼽혀왔던 컴퓨터그래픽(CG)도 호평을 받았다.

각종 SNS에는 날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보랏빛 외계인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장면 등이 인기리에 공유되고 있다. 극중 아이들을 이끈 소대장 신현수, 병장 이순원, 담임 임세미 등의 활약상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개가 산만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 시청자는 드라마가 한두 명의 주인공을 내세우지 않고, 3학년 2반 학생들 전부를 주연으로 삼아 보기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원작인 하일권 작가의 동명 웹툰에 비해 발랄한 분위기가 강해져 원작 팬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나왔다. 티빙은 한꺼번에 드라마를 공개하지 않고, 7회부터 10회까지 2부로 묶어 이달 안에 따로 선보이는 전략을 통해 시청자 반응을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블핑 ‘지수’, 스포티파이 글로벌 6위…케이팝 여자솔로 기록 갱신

타이틀 ‘꽃’, 빌보드 등서 연신 호평
솔로로서 새로운 모습에 팬들 열광


블랙핑크 지수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지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첫 솔로 음반 ‘미’(ME)를 통해 케이(K)팝 여성 솔로 가수 최고 기록을 세우며 솔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솔로 데뷔 예고부터 흥행 돌풍을 예감했던 지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각종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그룹 활동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수의 내면과 새로운 모습에 집중하면서 전 세계 팬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의 타이틀곡 ‘꽃’은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6위에 올랐다.

발매 첫날 스트리밍 횟수 467만 건을 기록했고, 아티스트 페이지 팔로워 수는 33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순위, 첫날 스트리밍 횟수, 아티스트 페이지 첫날 팔로워 수 모두 케이팝 여자 솔로 가수 최고 기록이다.

국내 기록도 이어졌다. 음반집계 사이트 한터차트 기준으로 발매 당일 87만6249장 판매됐다. 이 수치 역시 우리나라 여성 솔로 단일 음반 중 역대 최고 판매량이다.

지수는 소속사를 통해 “제 자신도 몰랐던 다양한 모습을 거듭 발견했고,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졌다”며 “보컬, 퍼포먼스, 시각적인 요소까지 모든 면에서 조합이 잘 맞는 곡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꽃’과 ‘올 아이즈 온 미’(All Eyes On Me) 두 곡이 담겼다. ‘히트곡 제조기’인 테디가 만들었다.

‘꽃’은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해 60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 조회수 5100만 회를 넘겼다. 특히 블랙핑크 역대 최대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은 뮤직비디오는 필름 카메라로 촬영돼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영상미가 인상적이다.

영국 유명 음악 전문지 NME는 “‘꽃’의 가사 첫 줄부터 지수가 솔로로서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고, 빌보드는 “지수가 이번 앨범으로 솔로 가수로서의 역량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전했고, 롤링스톤은 “‘꽃’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지수의 향후 행보에 주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